

# 조-태 갈등 '다시 수면위로'

## 태고종 선암사 성역화 추진 피장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상황이 상당한 갈등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태고종은 3월25일 승려대회에서 선암사 수호의 의지를 다진데 이어 선암사에 총무원 현판을 걸었다. 이어 8일 총무원에서는 선암사의 중장기적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종단중흥추진위원회 구성기로 했다.

태고종이 선암사를 성역화해 발전시키겠다는 이번에는 조계종과의 분규사찰인 선암사를 '확실한 태고종 사찰'로 굳히

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선암사 부주지 종연스님을 위원장으로 해 선암사를 종도들의 정신적 귀의도장으로 하는 성역화 불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설치할 중정원불사는 성역화 작업의 단초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명실공히 태고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량 정비 및 강원과 선원, 영불원 기능강화 불사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선암사 경내에 학교설립 가능지역을 선정,



◇태고종은 3월25일 선암사에서 승려대회를 갖고 총무원 현판을 달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서울 낙원동에 노숙자들의 숙소 '보현의 집' 준공식을 하려다 못했다. 주민들의 만류가세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낙원동 주민들은 걱정했다. '보현의 집' 부근은 전국 호모들의 집합소입니다. 실직자들이 골목안에 둘러들 경우 동네가 슬럼화되고 부녀자·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조계종은 열려 말라고 설득했다. "걱정마십시오. 보현의 집에 입주하는 실직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선발되므로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오

전7시까지만 사용하고 밤7시이후에는 외출을 금하며 입주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조계종은 보현의 집 근처에 방범초소 설치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시 실직자들을 부랑자로 오해하고 있는 낙원동 주민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일선 기자들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 못한 조계종에 아쉬움을 표했다. 주민들과 사전협의의 갖는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종로구청이나 서울시 등 행정당국에도 일침을 놓았다. 14일 회의 참석을 약속해 놓고 열광도 내밀지 않아 '낙원동 남비사건'을 남의 일 보듯 했다는 것.

결국 조계종은 낙원동 주민대표와 구의원, 종로경찰서 정보계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현의 집'을 큰 길가 사무실로 이전기로 합의했다.

사람들은 IMF의 고통을 나누자고 말한다. 노숙자들을 우리집 가장, 바로 나 자신,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는

말에 대부분 공감한다. 그리운 아내와 아이들, 어머니에게 쓴 '서울역 광장 발' 편지를 보면서 콧마루 시큰함을 느끼고, 신문지 몇장을 덮고 거리잡을 자는 노숙자들을 TV화면에서 보며 한숨을 내쉬는 우리들. 그러나 막상 그들이 곁으로 다가오면 파하러 든다. 고통나눔이란 이처럼 얇고 함, 언행일치가 쉽지 않다.

어느 교수는 세포가 체형하지 않은말은 '죽은 말'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누누히 강조하신 동체대비와 보시가 우리사회에서 살아있는 말로 확산될때 사람이 넘치고 IMF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목어

### 압과 함

## 조계종 소유권 등 초과일후 입장표명

## 태고종 종단중흥추진위 곧 구성기로

## 순천시 "상호타협 불상사 없길" 관망

동방불교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태고종의 '굳히기' 작업과 관련 조계종측은 '법적소유권'을 환기시키면서 강력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봉축행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총무원장과 전남북 소재 교구본사 주지 공중명의로 태고종에 대한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서는 선암사의 재산이 법적으로 조계종 소유라는 점과 현재 태고종이 추진하는 선암사 관련 사업들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고종은 조계종의 성명을 지켜 본 후 1954년 이승만대통령의 유시이후 발원된 '정화'에 대한 역사적 검증은 거론, 세이나 등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규사찰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태고종간의 갈등양상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태고종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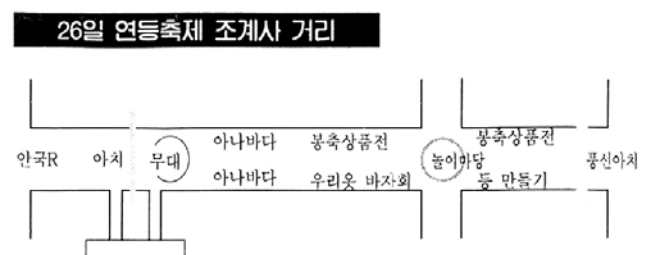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선암사 분규 문제와 선암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무원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3월24일 목포불교대학 개원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전남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선암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부처님 오신날 이후에 종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암사 조계종측 주지 세민스님은 "선암사는 조계종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태고종이 총무원을 선암사로 이전한 것과 기존의 선암사 재적승들을 퇴방시키고 새롭게 상주할 스님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분명하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산관리권을 갖고 있는 순천시는 이같은 조계-태고종간의 움직임에 대해 "상호 이해와 윈윈한 타협으로 불상사 없기를 바란다"는 관망자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선암사문제는 양 종단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태고종의 '굳히기' 작전에 조계종이 어떤 강도의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필선 기자



## 26일 연등축제

## 아나바다장터·바자회 등 조계사거리 '불거리 풍성' 3만개 촛불로 장엄 희망

26일 오후 2시부터막이 오르는 올 연등축제는 어느해 보다 불거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해참)는 조계사 앞에서 종각 사거리에서 열리는 구간에 아나바다 장터, 먹거리 장터, 봉축상품전, 우리웃 바자회, 등산 등기코너등을 설치하고 공평사거리에 놀이마당을 열어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

또 바람춤, 사물놀이, 북춤 사자놀이, 여군의장대, 원시의 수화노래 등 공연도 조계사 앞 거리 곳곳에서 펼쳐져 봉축의 흥을 돋우게 된다. 국제 포교사들과 외국어대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전담해 외국인들도 봉축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리는 연등법회에서도 지난해와는 달리 30여 대표단체의 입장식 순서를 마련, 법회 분위기를 한층 띄운다는 계획이다. 법회 순서 사이사이에 '만생명의 합창' 순서를 배치 찬탄의

희음을 끊이지 않게 한다는 계획도 주목할만하다.

또 제등행진에 앞서 전법의 의지를 결집하자는 내용의 선인문도 발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순서는 제등행진이 끝나는 조계사 앞길에서 펼쳐지는 화랑한마당, 화랑마당에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성직자로 구성된 삼사회의 합창속에 '촛불기원'이 펼쳐진다. 촛불기원은 참가 불자들이 밝히는 3만여개의 촛불로 '함께 이겨냅시다 다시 일어 설시다'라는 글자를 수놓는 순서. 글씨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120m에 이른다.

특히 봉축위는 공중파 방송과 협의해 연등축제를 중계하거나 녹화 방송하도록 방송사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법회도 중계한 연등축제를 방송하게 함으로 불교 최대의 축제가 전국민과 함께 하도록 한다는게 봉축위의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 "문화재 보존체계 확립 노력"

### 수요 인터뷰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유전 소장

우리나라 문화재 발굴·보존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제4대 소장에 고고학자 조유전(55) 前국립민속박물관장이 8일 취임했다. 69년 문화재연구소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의 창립멤버인 조 소장은 94년 7월부터 3년9개월간의 민속박물관장 경력을 빼고는 출근 문화재연구소를 지켜왔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 어떻게 문화재연구소를 꾸려나갈지 들어본다.

부담스럽지만 그보다는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앞섭니다. 문화유산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부단히 새로운 발굴과 보존 기법을 개발, 전국의 문화재관련기관에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편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국민들과 세계속에 알려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 최고의 문화재연구기관인 문화재관리국의 한 부서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관리국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리국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연구소는 올바른 관리가 이뤄지도록 보완차원에서 연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속돼 있으면서도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문화재연구소는 역량있는 내실

- 최근 문화재 발굴이 폭증하고 있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명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이신지.

▲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있는 이때에 문화재연구소장직을 맡아 다소



복원에 직접 참여해 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누가 그러더군요. 조유전은 황룡사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수 밖에요. 6~7년을 황룡사에서 살면서 땅을 밟고 황룡사로 박사학위도 받았으니 황룡사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지금도 간혹 경우에 가면 날로 변해가는 천년고도의 모습에 실망도 하지만 과거 몸담으며 생애했던 경우의 모습, 특히 황룡사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싶겠노라 다짐을 하곤 합니다.

- 국민들이나 불교계에 바람이 있다면.

▲ 문화재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유산의 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다면 올해는 이를 구체화시켜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교문화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교종단이나 스님, 불자들이 더 앞장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경주 황룡사지와 감은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 그동안 수많은 문화재 발굴·

윤기석 기자

## 조계종 태고종 소의경전

#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킨 생활지침서



내용이 쉬운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으니,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금강경을 수치 독송하고 싶은 마음이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보성 태고종 중정스님, 전 동국대 총장 -



80을 넘었지만, 기력이 왕성하신 것이 바로 금강경 공부때문이 아닐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이항녕 세계 평화교수 협의회 고문, 전 흥덕대 총장 -



기독교의 환경속에서 일생을 살아왔기에 불경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이 이 책을 읽고 불교에 대한 진면목적인 모습을 머리속에 환연히 그릴 수 있었습니다.

- 윤세원 선문대 총장 -



금강경 독송을 통해 특 터지는(깨치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 줍니다.

- 김지연 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제목을 통해서 윤 교수님이 참으로 금강경의 깊은 뜻을 터득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 이영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



독서대상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놓았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처럼 아주 구수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 박성희 서울 신문사 편집부장 -



출간 즉시 화제 폭발!! 초파일 법보시용 주문쇄도

- 20권이상 주문시 특별할인 가격으로 보급
- 200권이상 주문시 "사찰명과 법보시 발원문"을 인쇄해 드림

바른법연구원 내용 및 단체구입 문의 ☎ 02-337-1636, 0344-63-2872



이 책을 통해 도를 깨쳐서 조선 천지를 개혁하는 일을 기대해 봅니다.

- 이영무 (문제스님) 태고종 승정, 원호 연구원 이사장 -



여러 일화를 통해 오늘날의 시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 류종민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중앙대 미대교수 -



현대를 사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마음의 병에 대해, 참된 치료방법이 이 책속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최정운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



여러가지 비유와 실화 이야기 등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시켰고, 결국은 32분 340쪽인 이 책을 다 읽이 버렸습니다.

- 김모란 홍익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6학년 -



내용이 딱딱할 것 같은 내 생애과는 달리 재미있는 예문도 많고 설명도 자세해서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은 본래 없고 분별인 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그후 놀란 만큼 잠이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 김효연 백운 중학교 3학년 -

♣ 초등학교도 읽는 조유의 금강경 예설서 ♣